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제 1독서 : 2사무 5,1-3

제 2독서 : 골로 1,12-20

복 음 : 루가 23,35-43

숲 정 이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루가 23, 43)

강론

백일몽(白日夢)을 꾸는 왕?

한정현 신부 / 원평 천주교회

오늘 복음의 장면을 무대에 연출한다면, 예수의 역할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단말마(斷末魔)의 고통 속에서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 등극하시는 비극적인 “유다인의 왕”(루가 23, 38)이다. 그런데 이 왕이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저지르는 현실의 통치자와는 달리, 한 번도 권좌에 올라 세속적인 영화나 비자금의 특혜(?)를 누려 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분은, 이 “지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오늘, 우리가 경축하며 기리는 그 “왕”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왕인가?

혹시 그 “왕”이라는 게, 결국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로소이다”하고 읊조리며 공상 속에서나마 왕이 되기를 꿈꾸는, 그런 의미의 왕은 아닌가? 사실 그분은, 사람들 눈에 “백일몽을 꾸는 왕”으로 비칠 수도 있다.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을 혹독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미래의 왕으로 고백하는 회개한 도둑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혹한 현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단지 아편이나 진통제로써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을 달래 주려고 하는 ‘몽상가 적인 왕’의 모습을, 사람들은 발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비쳐진 그분의 그런 모습이 그분의 진면목일 수는 결코 없다. 왜냐하면 꿈꾸는 한 몽상가가 상상 속이나 지니고 있을 허약한 왕권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확고한 왕권은 당신 자신을 못박고 조롱하던 사람들마저 용서하시던, 저 ‘십자가’ 위에서 벌써 시작되어, 끝내는 ‘죽음’을 치이긴 그분의 ‘부활’로써 항구히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경축하며 기리는 그 “왕”, 즉 “그리스도 왕”은 사라져 가는 현세의 통치자도, 한낱 백일몽을 꾸는 비현실적인 공상가도 아닌,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시리고 계시는 진정한 의미의 “왕”, 즉 “왕중의 왕”(묵시 19, 16)인 것이다.

소리

불행한 대통령들

노태우 씨 사건, 참으로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연일 부정한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이에 얽힌 여야 대변인들의 입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들 그러는가? 그것은 그 검은돈이 바로 지난번 대통령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데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다.

부정한 돈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건, 그 돈뭉치는 국민들 하나하나와 무관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답해야 할 사람들은 엉뚱하게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 노씨는 처음부터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잘라버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직접’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간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대통령들은 불행한 길을 걸었다.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애정과 감사가 깃든 박수 한 번 받지 못하고 국민 곁을 떠났다. -하와이 망명, 부하의 총탄, 자택 침거, 백담사 유배, 구치소 수감, 유쾌하지 않은 역사의 한 모습이다.

이제 정치적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버려야 한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대선자금 문제나 5·18에 대해서 명쾌한 마무리를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김 대통령부터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을 수용해야 한다. 적어도 문민정부 대통령이라면. **㉠**

숲정이 산책



제1회 성서주간 담화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루가 24, 18)

1.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크건 작건 우리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움직입니다. 성서를 태동시킨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민족에 비해 특별히 달랐던 점은 자신들이 겪은 사건들을 돌아보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과 손길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나 백성 전체가 겪는 사건들을 신앙인의 감각으로 다시 돌아보며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낸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에나 그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과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아가며 읽어야 합니다.

2. 지난 일이 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수 대교 붕괴사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건, 대구 가스 폭발사건, 삼풍 백화점 붕괴사건, 유조선의 침몰과 기름 대량 유출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은 2천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의 수로 보나 그 강력한 상징적 의미로 보나, 우리 모두의 가슴에 가장 깊이 새겨진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모두 백화점에 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백화점은 물질적 가치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노력의 결실을 상징하는 그 건물이 다양한 의미와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백화점의 폐허 위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인가?

3. “가톨릭 성서 연합 제5차 총회”가 전세계 70여개국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내년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홍콩에서 열리게 됩니다. 6년에 한 번씩 열려서 다음 6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전개될 성서 사도직의 방향을 정하는 이번 대회는 매마침 생명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인 하느님 말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요한 10, 10)

하느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려 주시고 거기 도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며 실제로 거기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이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 14, 6)이심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생명의 가치를 잃어가는 우리 시대에 힘써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루가 7, 22) 그분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은 예외없이 모두가 소경이요 절름발이이며 나병환자이고 귀머거리이며, 참으로 귀중한 것을 지니지 못한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4. 엠마오르 가던 제자들은(루가 24, 13-35) 생명의 이런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먼 길을 거쳐 가야만 하였습니다. 우선, 자기네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게 한 사건을 경험하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나눔의 체험을 통해서 그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길도 같았습니다. 비슷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 가르침이야말로 과연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신념 위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 생활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때, 죽음의 길에서 빠져 나와 생명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 병 호 주교

현대 미용학원
미용과 · 피부과
메이크업 · 분장과
김 금 순(테레사)
전주시 전북1동 373-3
☎ 86-2211, 254-3003

현대체육사 의료기
케스트 등산점, 헬스기구, 무용복, 에어로빅, 수영복, 게이트볼, 줄리닝, 유니폼, 선물기념품, 상패, 열압계, 혈당계, 안마, 속은습점질기, 원적외선 등
김 병 섭(프란치스코)
창원동 천주교 상가
☎(0653)841-6760, 842-8949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게시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리키아파트 앞
☎본사 :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 (0654) 467-6578~9

유성주얼티
예물 및 각종 원색 가공판매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호박, 지수정, 진주
김 순 희(세실리아)
익산시 영동동 221-2
☎(0653)835-1660

잠깐

9.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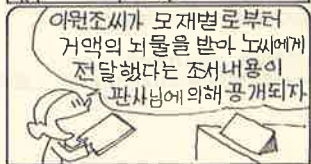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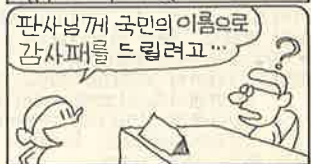
행복한 가정을 바라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을까. 지금 이순간 혼인을 치르고 성당과 예식장을 막 나서는 수많은 젊은 부부들도 막연하게나마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느라 부푼 꿈에 젖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많지만, 가정 본래의 모습을 잃은 파괴된 가정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녀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정을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여 자녀들에게 풍부한 유산을 물려주려는 것이 많은 부모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그러한 부모가 능력있고 훌륭한 부모라고 사회의 여러 환경이 부추키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 많은 재화를 모으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곧 자녀들에게 부모와 함께한 추억을 만들어 주는 시간을 잃고 있는 것이다. 추억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의 크나큰 바탕이 된다. 부모 자신이 지난날 가정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도 그러한 좋은 추억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은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자녀들의 삶을 한 층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첫번째 추억은 부부가 서로 일치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가정 생활에서 몸소 보여 주어야 한다. '부모의 삶은 자녀들 삶에 있어서 첫째가는 거울'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여 지난날을 돌이켜봤을 때, 부모가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해 주고 항상 부모가 먼저 다가왔다는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의 즐거운 추억이란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보다도 자녀들의 이야기에 자녀들의 눈높이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루어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부모와 함께 나눈 추억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는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요심이 (1160) 김병오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제(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

교형 자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박진상 한의원
박진상
김정연(안젤라)
전주시 인후동 안골 사거리 (인후 성당 앞, 전북은행 옆)
☎ 241-5553, 242-5553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 · 이해경(글리리)
북전주전환국 ↔ 법원 중간
☎ 253-3222

교구 소식

- * 상설교백소 :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2시~5시, 전동 성당
- 1. 가톨릭 문우회 모임 : 12월2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2. 레지오 단원 교육 : 11월27일(월) 전동 성당
- 3. 성모 기사회 : 12월2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4. 본당 여성단체 임원 및 단체장 피정 : 11월27일(월) 오전9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권이복 신부, 회비-6,000원
- 5. 윤양호 신부 주소 : St. Peter In Gallicantu P.O.Box 31653, Jerusalem 91316 ISRAEL ☎ 972-2-731-739 FAX 972-2-734-837
- * 축! 영명 : 30일(성안드레아) 박종근, 김태운, 박성팔, 장상원 신부 12월3일(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고경훈, 주묵성 신부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환온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리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복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젼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김장 걱정 하세요? 3만원만 쓰세요!
정한 날 정한 시간, 덕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고병지 배추, 고추 등 양질의 양념과 심
적산 지하 115m 청정 암반수로 담아 연중
-2℃ 냉각 숙성시킵니다.
품목 : 배추김치, 알타리, 파, 깍뚜기, 동치미
· 주문처 : 순창 성당 영농조합 (0674)53-8040~1, 52-1004
가톨릭동민회 부설 동산매장 (0652)212-7442, FAX. (0674)53-041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그리스도왕 대축일
- ◎ 성서주간: 11월26일~12월2일까지
- 1. 성무회 임원: 회장-노판석(알로이시오) 부회장-서용봉(요한) 서기-송석창(프란치스코) 재무-서남석(안토니오)
- 2. 기정방문 안내: 28일(화): 오전 10시-중노 13반, 오후-중노 14, 15, 16반 29일(수): 오후-인후 1반 30일(목): 오전 10시-중노 17반, 오후-중노 18, 19, 20반 12월1일(금): 전 10시-중노 21반, 오후-중노 22, 23, 24반
- 3. 외곽교우 초청의 밤: 12월5일(화)
- 4. 성당 들청소: 29일 어머니미사 후 * 청소도구 지참바랍니다.
- 5. 모임: ①천사의 모후Cu.(오늘, 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29일, 어머니미사 후) ③사목회 상임(1일, 저녁미사 후) ④올트레야(3일, 공식미사 후)
- 6. 금주 청소: 중노 1, 2반 지주 청소: 중노 3, 4반

□ 2차헌금: 364, 030원
□ 지난주 봉헌금: 973, 970원 □ 교무금: 1, 564, 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오늘은 성서 주간(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 1. 금주 모임: 반장회-11월26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빈첸시오-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 뜻이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바랍니다.
- 2. 차주 모임: 꾸리아-12월3일(일) 오후 2시, 성당 청년회-12월3일(일) 저녁미사 후, 회합실 사목회-12월5일(화) 오후 8시30분, 회합실 자모회-12월7일(목) 레지오 회합 후, 회합실
- 3. 기부금 영수증: 성당에서 현금한(교부금 특별헌금) 영수증 필요한 분 사무실로 오십시오.
- 4. 성가 연습: 매주 수요일 후 7시30분, 성당 * 성가를 배우고 싶으신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나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5. 축! 흔배: 오늘 공식미사 후 11시30분 신랑-신학현 군, 신부-강순주(글라라) 양
- 6. 청소 안내: 금주-평화의 모후 차주-정의의 동정녀

□ 지난주 봉헌금: 1, 025, 300원 □ 교무금: 2, 170, 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1. 복자 성당 30주년 및 '오시는 주님' 맞이 신앙 대강연회 · 12월1일(금) 지정환 신부님, 8일(금) 김진소 신부님 15일(금) 이병호 주교님, 22일(금) 이순성 신부님 * 매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합니다. 모두 참석합니다.
- 2. 청년회 정기총회: 오늘 저녁미사 후
- 3. 성서주간: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 4. 성소후원회 모임: 12월 3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성소후원 회비를 내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 5. 합동 연도: 오늘 공식미사 후
- 6. '본당의 날 행사'를 위한 사목회 확대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각 단체장들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 7. 성무회, 대간회: 12월3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8. 사목회: 12월 3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9. 제57차 M.E 주말부부 퍼정에 김현덕 다미야노, 손화수 마리아 부부가 다녀왔습니다. 금주 전례: 헤설-허정식, 독서-이상은 부부 봉헌-김병화 가족 차주 전례: 헤설-최옥남, 독서-안철조 부부 봉헌-박남수 가족 성당 청소: 12월 2일(토) 사랑하움 어머니Pr. 일치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671, 100원 □ 교무금: 2, 209, 000원
- 평신도 주일 2차헌금: 290, 550원
- 감사헌금: 10, 000원(최복순 세실리아)

*** 상 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 11월은 위령성월: 연령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묵상합니다.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 1. 모임: ①성모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②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다음주일 ③사목회-12월 2일(토) 7시30분
- 2. 가정 방문: 29일(수)-신홍리, 30(목)-내정리, 기타, 12/1(금)-서당리, 공기
- 3. 감사: 성전보수비 봉헌-이상용(10만원) 남창욱, 임계승(5만원) 이정례(3만원) 이복이, 김남석, 박종원, 백귀래, 우종완, 김금자, 전선풍, 이남순(2만원) 한삼순, 김필주, 유순금(1만원) 색장(5만5천원) 계-475, 000원, 총계-8, 588, 000원
- 4. 사목회 임원 임명: 회장-강덕용, 부회장-오철규, 이석남, 감사-김관식, 최경림, 총부-남현준, 선교-이옥동, 전례-김영신, 재정-김종석, 교육-이명수, 구역-박귀걸, 홍보-최상운, 사회복지-송정자, 애령-최상욱, 여성-김금자, 청소년-강재석, 교문-이정우, 한동욱, 양주태
- 5. 축! 결혼: 12월2일(토) 1시 서울 성당 성당, 신랑-김태권(안드레아) 신부-최인순(안나), 최상욱씨 장녀)
- 6. 성당 청소: 금주-셋빌Pr. 차주-평화의 모후Pr.
- 7. 금주 전례: 헤설-이준봉, 독서①남현준 ②이순자 봉헌-김단오 가정
- 8. 차주 전례: 헤설-최원규, 독서①양주태 ②이석남 봉헌-김진규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77, 100원 □ 교무금: 676, 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 금주는 성서 주간입니다(11월26일-12월2일)(성서주간 안내표대로 살아 봅시다)
- ◎ 성서주간 목요일 성시간 및 성체강복: 11월30일(목요일 전 10시)(12월 성체조배 및 강복을 대신합니다)
- 1. 금주: ①교부금 납부주일 ②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③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 2. 성가정회: 1일(전 11시) 3. 병자 봉성체: 1일(후 2시)
- 4. 레지오 마리에 단원교육: 12월2일(토요일, 오후 7시~9시30분)(전단원은 오후 6시30분까지 전원 참석바람)
- 5. 초등부 은총성가: 12월 2일(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전동성당 내, 대상-유치부~6학년
- 6. 95년 레지오 마리에 연차 총 친목회: ①바비의 성모Cu. 일치의 모후Cu.-12월2일 저녁미사 후 성당 ②성마리아 꼬미시움 직속Pr. 애덕의 모후Cu.-12월9일 저녁미사 후 성당
- 7. 대림절 특별강론: 강사-법석규(마티아) 신부님(대림절 공식미사중) 8. 빈첸시오 회원 모집: 불우한 이웃에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 미혼 청년회원을 기다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회합실에서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 9. 차주: ①재축극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②애덕의 모후Cu.(후 3시) ③요셉회(후 6시) ④올트레야(후 8시) ⑤성서주간 목요일 성시간 및 성체강복-11월30일(목요일 전 10시)(12월 성체조배 및 강복을 대신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 949, 04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삼상근

- ◎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루카 23, 42)
- 1. 성서주간: 26일~12월2일까지, 계획표에 의해 가족기도
- 2. 연도대회: 28일 저녁 7시미사 후(구역별 사무실에 신청)
- 3. 레지오 단원 교육: 27일 저녁 7시~10시, 전동 성당, 3명이상
- 4. 세삼을 떠난 L.M 단원 연미사 봉헌: 29일 전 11시, 후 7:30 Pr.벨로 단기 세우고 미사 후 합동 연도
- 5. 성서주간 성시간: 30일 저녁미사 후, 예비자도 함께
- 6. 유아 세례: 12월 2일 후 3시(사무실에 신청)
- 7. 형제기도회: ①27일 저녁 8:30, 6구역 이상욱(힐라리오)태, 주공 206/517 ②30일 저녁 8:30, 8구역 8, 9반 서만식(다미야노)태, 교요봉 8/1603
- 8. M.E 가족 나눔 모임: 각 팀별 주간에 실시 바람.
- 9. 쉬는 교우 방문: 28일 전 9시-8구역 7-12반, 30일 전 9시-9구역, 12월1일 전 9시-10구역
- 10. 자선의 날: 29일 어머니, 아버지 미사중(정성껏 봉헌합니다)
- 11. 회의: 올트레야, 풍송회-오늘 공식미사 후, 빈첸시오회-27일 전 10시, 평화의 여왕Cu-12월 3일 후 2:30, 성지회-12월3일 공식미사 후 12. 축! 혼인: 12월3일 12:30 분당, 신랑-문강식(모이시) 신부-정순옥(문경복(베드로)씨의 자) 13. 축! 혼인: 12월 3일 후 1시 전동성당, 신랑-서민철(알벨도) 신부-박은하(엘리사벳)(박종욱(가필로)씨의 자) 14. 구역 반회강담들은 12월1일부터 사무실에서 성탄 관공 성사표 가져가세요.
- 지난주 봉헌금: 1, 449, 720원 □ 교무금: 2, 607, 000원

상설 고백소: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 성당